日불교 최대 종단 지도자 80년 만에 대담

정토진종 2분파 지도자 한자리
신란 대사 탄신 850주기 성사
현대서 불교 가르침 종교인 자세
세계평화 · 환경문제 의견 나눠

박영빈 객원기자



8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두 종단의 지도자. 오타니 쵸유 문수(좌측)와 오타니 코쥰문주(중앙).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불교 교단인 정토진종의 양대 분파 두 종정이 한 자리에 앉았다. 양 파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로, 상징적 존재인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80년 만이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3월 6일 정토진종 혼간지파 종정인 오타니 코쥰문주(門主)와 정토진종 오타니파의 종정인 오타니 쵸유문수(門首)가 함께 진행한 대담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정토진종은 일본불교 최대의 종단으로 아미타불의 서원을 종지로 삼고 염불을 주 수행으로 삼는 종단이다. 13세기에 창종됐으며 크게 10개의 분파들로 나뉘나 교토의 동본원사를 본산으로 하는 오타니파와 서본원사를 본산으로 하는 혼간지파가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고 있다. 두 파를 합쳐 신도는 현재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동서 본원사는 17세기에 종단의 후계자 다툼으로 분열되었으며 양 사찰 간의 거리는 불과 500m다. 지금까지 서로 큰 대립 없이 협력하며 정토신앙을 포교해 왔으나 실제 지도자들 간의 대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 종단 측은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주와 문수 간의 공식대담은 1868년과 1943년의 2차례 뿐"이라고 전했다. 80년 만에 성사된 양 지도자의 대담은 이달 하순부터 봉행되는 종조 신란(親鸞)대사 탄신 850주기와 창종 800주기 기념법회에 앞서 진행된 것이다. 대담은 각 사찰 측에서 신문사를 초청하여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3월 6일, 서본원사에서 진행된 대담회는 현대에서의 불교 가르침, 종교 본연의 자세에 대한 토론과 함께 세계평화와 환경문제에 종교가 하는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대담의 주체인 코쥰문주와 쵸유문수가 일본불교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일본불교회'의 전 회장, 현 회장이라는 점에서 대담의 내용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먼저 탄생 850년을 맞이하는 종조 신란대사의 가르침에 대해 코쥰문주는 "신란대사는 창종 당시 사회에서 차별받던 이들의 입장에 서 있었다. 불교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고통이나 슬픔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와 관련된 태도도 형성되어 간다"고 설명했다. 쵸유문수도 "지금이야말로 소중한 가르침이며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을 어떻게 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세계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 코쥰문주는 "각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각자의 행복, 사회 전체의 안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쵸유문수는 "불교의 가르침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세계의 발견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즈음의 종교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선 쵸유문수는 "종교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종교단체나 거기에 속한 인간의 행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쥰문주는 "종교는 마음을 가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종교를 필요 없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그 역할을 강조했다.

캄보디아, SNS 스타 스님과 불교계 충돌

전통계율 위배 vs 현대 포교법
"SNS로 불교 판단 안돼" 지적



SNS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스님들로 인해 기존 불교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 사진출처=레스트 오브 월드

최근 캄보디아 불교계에서 SNS를 통한 '스타스님'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불교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기존 불교계는 스님들의 과도한 SNS 활동이 전통적인 계율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반면, 현대에 맞는 포교법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3월 7일, 인터넷 기술 전문 리뷰 매체 '레스트 오브 월드'는 캄보디아 불교계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보도했다.

영상 전문 SNS인 틱톡에서 1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캄보디아 피세이 스님은 매일 저녁 몇 시간 동안 혼자 방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한다. 스님은 "어떠한 수익이나, 명성을 얻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전하고 싶을 뿐"이라며 SNS 활동을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스타스님'인 시엥하이 스님은 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처음 틱톡을 시작한 스님은 처음엔 크메르어와 문학을 강독하는 교육콘텐츠를 촬영하여 게시했다. 그러나 점차 스님은 강독보다는 짧은 법문들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사찰의 생활이나 스님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등의 영상을 올리며 시청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시엥하이 스님은 "가급적 시청자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려 하지만, 출가자로서 너무 가깝게 지내려는 하지 않는다"고 웃어 보였다.

'멍크 톡(Monk Tok)'이라고도 불리는 스님들이 운영하는 틱톡의 부상은 현재 캄보디아 불교계에서 뜨거운 이슈다. 보수적인 불교계 인사들은 "SNS에서 주된 관심사이자 스타덤에 오르는데 필요한 콘텐츠는 보통 춤이나 노래, 재력, 주변의 명성 등이다. 이 모든 것은 출가자가 피해야 한다고 율장에 규정되어 있다"며 SNS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스타 스님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에 반해 현대에 맞는 포교법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레스트 오브 월드 측은 지난 수년 동안 캄보디아 스님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신도들과 소통해왔고, 법문을 공유했으며,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통해 삼림벌채를 모니터링하거나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실제 스타 스님들은 대부분 법문을 공유하거나 스님들의 생활을 전하는 등 대중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한 포교의 일환으로 SNS를 운영하고 있다. 시엥하이 스님은 "SNS 활동과 계율을 별개로 생각해선 안된다"며 "자신의 영상은 모두 사찰의 소임자와 강사스님들의 검수와 조언을 따라 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놈펜 불교대학의 부총장인 셍옛스님은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불자들에겐 깨달음과 지혜를 상징하지만, 타종교인들에게는 우상, 미술가들에겐 예술작품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SNS가 잘못된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SNS를 통해서 불교를 판단하거나 좋지 않은 면만을 부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군, 스님 포함 민간인 30명 학살

남부 샨주 삔라웅 타운십 마을 폭격
스님 3명도 시신으로 발견돼 수습



사진출처=BBC

미얀마 군부가 한 마을을 공격해 스님을 포함한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했다.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미얀마나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3월 11일 남부 샨주 삔라웅 타운십의 한 마을을 폭격했다.

이날 마을에서는 미얀마 군부와 반군부 저항군 간 전투가 벌어졌다.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여러 민족 민병대 중 하나인 카레니민족방위군(KNDF) 등 연합군은 미얀마 군부에 저항했다.

미얀마 군부는 마을 인근 언덕에서 첫 포격을 가한 후 마을에 진입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했다. 저녁에는 전투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습에 물러났던 저항군은 이튿날인 12일 마을 사원에서 승려 3명과 10대 소년 2명 등 민간인 23명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미얀마 군부의 폭격이 시작되자마자 마을을 떠났지만 사원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 2명은 사원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KNDF 측은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을 수도원 앞에 줄지어 세우고 잔인하게 총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습하지 못한 시신을 포함하면 약 30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이달 초에도 중부 사가잉 지역 마을을 습격해 민간인 17명을 살해했다.

반면 군부는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며 이들이 민간인이 아닌 무장단체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윈 민트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 등 여당 당원들을 구금,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은 3천 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4만 채 이상의 민가가 파괴되고, 학교가 폐허로 변해 8만 명 이상 어린이의 학업이 중단된 상태다.

박정현 객원기자

印, 불교유산 공유의 장 국제포럼 개최

3월 14~15일, 뉴델리에서
중앙아시아 불교예술 살펴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불교문화유산 공유를 위한 국제 포럼이 열렸다.

3월 14일(현지시간)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부터 양일 간 뉴델리 비갼 바완(Vigyan Bhawan) 컨퍼런스 센터에서 '불교문화유산 공유'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인도 문화부와 외무부, 국제불교연맹이 공동 주관한 이 자리에는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참석했다.

연사로는 정치인 시리 G 키샨 레디(Shri G. Kishan Reddy)와 문화부 장관 아르준 람 메그왈(Arjun Ram Meghwal) 등이 나섰다.

해당 포럼은 인도의 불교문화유산을 전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른바 '초문화적 공유'를 위한 자리다.

아울러 지난 17~18일에는 SCO 회원국의 문화관광부 장관 회의도 열렸다.

SCO 관계자는 "국경을 초월해 초문화적 연결을 재구축하기 위해 온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중앙아시아의 불교 예술 및 고고학적 유적지와 회원국들의 불교문화유산 간 공통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무료공급 00명
발명특허출원 원료
■ 감소된 수치 10년 이상유지
■ 크레아티닌 수치 1.30이상 투석 자 제외
옻나무 톱밥(티백) 식품허가 독성제거
제품원료 1개월분
티백 2kg+장수버섯 100g
복용 전 크레아티닌수치
혈액검사 표 6개월 전까지 유효
복용 전 후 혈액검사
핸드폰 영상으로 본사제출
황보 생약 대표 010-5556-1526
택배무료
E-mail : nsazxcv@naver.com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